



Beethoven Piano Sonata No. 14 in c# minor,  
Op. 27-2, 'Moonlight' 1st movement.

## My Music Project

소프트웨어학부  
20152791  
강길웅

# 1 개인적 의미

## 1.1 음악을 접하다

처음 이 음악을 접하게 된 것은 굉장히 우연이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게임 결말 엔딩에 나오는 배경음악 이었다. 어떠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탈출하며 하나씩 스토리가 진행되어가는 내용의 게임 이었는데, 맨 마지막 게임의 엔딩에서 범인의 스토리와 함께 이 음악이 흘러나왔다. 음울한 스토리 전개와 어둡고도 슬픈 만화와 함께 월광 소나타가 함께 흘러 나왔고, 음악이 온전히 녹아 스토리에 스며들며 스토리의 비극적이고도 안타까움을 부각시켰다. 그 뒤로 계속 여운이 남아 인터넷에 음악을 찾아보게 되었다. 베토벤의 ‘월광’ 이라는 곡이었다. 어둡고 슬프지만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듯한 곡을 들으며 스토리를 다시 곱씹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어둡고도 슬픈 곡조 안에서 서정적이고도 감성적인 또다른 아름다움이 찾아왔고 곡의 별명인 ‘월광’ 처럼 어두운 가운데서도 환하게 아름다운 달빛이 연상되었다.

## 1.2 음악의 영향

당시 어린 나이의 나로써는 상당한 충격과 여운을 안겨주었다. 스토리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인상을 줄 수 없었을 내용이었지만, 음악이 더해지며 본래 곡 특유의 분위기가 스토리에 더해져 강렬한 인상과 여운을 심어 주었다. 몇 일간은 계속 음악과 스토리가 떠올랐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의 느낌과 내용이 생생하다.

그 때에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 라기 보다는 관심이 없었다. 반 강제로 다니게 된 피아노 학원 때문에 피아노나 다른 악기를 다루며 악보들을 다루었지만 취미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대중 음악과 같은 음악을 듣게 되더라도 그저 감상으로, “아 이 음악 좋다.” 라는 생각이 들 뿐 이었다. 1차원적인 생각인데 음악은 음악 그 자체로 좋은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앞 장과 같은 경험을 하고는 음악과 스토리의 조화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을 깨달았고, 음악은 단순히 음악에서 벗어나 작가와 같은 창작자가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 그것을 더욱 증폭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뒤로는 영상과 같은 매체에서 배경음악이 흘러 나올 때 좀 더 음악에 귀 기울이며 듣기도 하고 음악을 들을 때에도 ‘아 이런 스토리의 내용과 함께 이 음악이 흘러나오면 정말 잘 어울리겠다. 더 큰 내용 전달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곤 했다.

# 2 사회적 배경

## 2.1 음악과 연관된 배경

### 2.1.가 ‘월광’ – 부제에 관해

많은 이들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을 ‘월광’ 이라는 부제로 칭한다. 하지만 ‘월광’이라는 부제는 베토벤이 붙인 것이 아니다. 베토벤은 이 곡을 ‘환상곡풍 소나타(Sonata quasi una Fantasia)’ 라는 부제로 출판했는데 베토벤 사후 5년 뒤, 1832년 독일의 시인이자 음악평론가인 루트비히 뢰슈타프(Ludwig Rellstab)가 "제1악장의 분위기가 달빛이 비친 스위스 루체른 호수 위의 조각배같다" 라고 묘사

한 것에서 <sup>1</sup>많은 이들이 공감하게 되었고, 출판사들도 ‘환상곡풍 소나타’ 보다 ‘월광 소나타’ 라는 제목이 더 와닿기 쉬웠기 때문에 ‘월광’ 이라는 부제로 더 유명해지게 되었다.

### 2.1.나 베토벤

해당 곡은 베토벤의 제자이자 베토벤과 연인 관계였다고 하는 줄리에타 귀차르디 (Giulietta Guicciardi) 에게 헌정된 곡이다. 베토벤은 사랑꾼으로도 유명한 작곡가 이기에 그가 그녀에게 이별의 편지 차원에서 이 곡을 작곡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베토벤은 이 곡에 대한 배경을 크게 언급한 것이 없다. 오히려 그가 이 곡을 작곡했을 당시는 청력장애가 심했을 때이다. 또한 귀차르디와의 연애도 그녀의 집안 반대로 난향을 겪고있던 상황이라 베토벤에게 매우 우울한 시기였다. 때문에 이 소나타는 어쩌면 아름다운 서정이나 낭만, 사랑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불행이나 슬픔, 우울을 말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 2.2 음악사적 의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들은 바흐의 평균율과 함께 피아노 음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곡인데, 바흐의 48곡 평균율을 구약성서로 베토벤의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신약성서로 칭하곤 한다. <sup>2</sup>이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중 하나로 속해있는 월광 소나타는 현대 뿐만 아니라 베토벤 당대에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초판이 출판되자마자 당대의 가장 중요한 연주 목록에 포함 되었으며 당대의 많은 연주자와 피아노 애호가들이 이 소나타의 악보를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차후 쇼팽은 이 월광 소나타의 3악장에서 영감을 받아 ‘즉흥환상곡’을 작곡했다.

베토벤의 소나타들은 당대의 음악 문법에 도전했던 곡들이 많은데 그중 월광은 다른 소나타들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진다. 베토벤의 소나타들이 견고한 구축력과 난해한 음악 어법이 많은데 비해 해당 곡은 오직 감성적인 측면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베토벤의 작품 중 작곡가의 감성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월광이 특히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음악적 특징

### 3.1 형식

기존의 통상적인 소나타 알레그로 악장이 아닌 느린 세레나데 노래 형식을 취한다. Adagio sostenuto C단조, 3부형식을 취한다. 월광 소나타는 기존의 피아노 소나타와는 다른 형식을 띄는데, 구조적으로는 다 악장의 소나타이지만 기존의 악장 수와 배열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형식을 갖추고 있다. <sup>3</sup> 『A Companion To Bethoven's Pianoforte Sonatas(Bar-to-bar Analysis)』 (Tovey, Donald Fancis, London : the Rotal Schools of Music, 1931 )에서는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코다로 구분하고 발전부와 재현부의 요소를 가지고 진행되는 선율로 분석했다. <sup>4</sup> 이것은 전문 음악인이 분석한 것이

<sup>1</sup> 김방현, 『베토벤』 (서울: 음악세계, 1999), p. 420-421.

<sup>2</sup> 변인정. "베토벤 「월광 소나타」의 감상 지도 방안 연구" VOL.- NO.- (2015), p. 1

<sup>3</sup> 변인정. "베토벤 「월광 소나타」의 감상 지도 방안 연구" VOL.- NO.- (2015), p. 19

<sup>4</sup> Tovey, D.F., 『A Companion To Bethoven's Pianoforte Sonatas(Bar-to-bar Analysis)』,

고 음악 전공이 아닌 본 작성자가 분석하기에는, 해당 곡은 처음 셋잇단음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5마디까지 도입부, 이후 ‘탄-따단’ 하는 지점부터 시작하는 주제부, 맨 마지막 코다 정도로 구분하고, 주제부를 제 1부, 제 2부, 제3부로 생각했다. 도입부와 코다는 명확한 구분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고 주제부에 대해서는 주제부 앞단에서 선율이 흘러나오다가 점점 고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조되기 이전을 제 1부, 고조된 지점을 제 2부로 생각했고 고조된 지점을 점차 지나 다시 제 1부와 유사한 선율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 1부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 3부로 지칭했다.

## 3.2 어울림/선율 구조

계속 흘러가는 셋잇단음표가 등장하고, 네마디 서주 후 주제로 도입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곡의 선율 구조가 단조롭고 여운이 남는다. 피아노를 이용하기에 단 선율이 아닌 여러가지 선율이 느껴지는데, 총 세가지 선율 정도가 들려지고 왼손으로 하나의 선율을 오른손으로 두가지 선율을 연주 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왼손으로 치게 되는 베이스 선율이 있다. 베이스 선율이 음악의 전체적인 배경을 이루고 풍성하도록 한다. 해당 곡에서는 대부분 박자가 긴 화음을 연주하는 것으로 들린다. 두가지 선율이 추가로 더 들리는데 두 선율의 음역대가 비교적 낮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셋잇단음표로 계속해서 연주되는 선율이 있다. 이 선율은 왼손으로 연주하는 베이스 선율과 유사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악을 더 풍성하게 한다. 또한 이 선율은 분산화음주법(아르페지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곡의 서정적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들리는 선율 중 왼손의 베이스 선율과 오른손의 셋잇단음표로 이루어진 선율을 제외하는 나머지 선율이 있는데 이것이 주요 주제 선율이라고 생각한다. ‘탄-따단’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율인데, 작곡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가장 잘 녹아있는 선율이라고 생각한다.

## 3.3 음색

### 3.3.가 아르페지오

화음의 구성을 한꺼번에 눌러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음 씩 따로 연주하는 것을 ‘아르페지오’(또는 분산화음)라고 칭한다. 해당 곡에는 도입부에서부터 이 ‘아르페지오’ 주법이 계속 나타난다. 이 주법을 통해 한음 한음이 더 뚜렷하게 들리게 되고 이 곡의 서정을 더 아름답게 표현해준다.

### 3.3.나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악상

1악장 도입부를 보면 ‘Adagio sostenuto’ 라는 지시가 붙어있다. 이 지시의 의미는 ‘음의 길이를 충분하게 잡아서 느리게’는 의미이다.<sup>5</sup>이를 통해 한음 한음이 뚜렷이 들리게 되고 음이 충분히 끌어서 연주하게 되어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곡의 분위기를 이끌어 내도록 했는데, 베토벤은 이것으로는 모자랐는지 ‘Si deve suonare tutto questo pezzo delicatissimamente e senza sordino’(악장 전체는 섬세하고 댐퍼 없이 연주되오야 한다)이라는 지시를 코멘트로 달아 놓았다. 한편 ‘sempre pianissimo e senza sordini’

라고 지시 했는데, 이는 현악기 등에서 약음기를 제거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 ‘페달을 계속 밟은 채로’ 라는 의미이다.<sup>6</sup> 베토벤은 이렇게 섬세하고도 감성적으로 연주 하라고 지시하여 곡이 서정적이고도 감성적인 음색을 가지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 3.4 박자

2/2박자를 가지고 있다. 2/2 박자를 사용하게 되면 한 호흡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곧 강세로도 이어진다. 이것은 곧바로 연주 스타일이나 연주자의 한 호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2/2박을 사용하게 되어 한 호흡이 길어지고 차분하고도 서정적인 ‘월광 소나타 1악장’ 곡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 3.5 악기

악기는 피아노이고 독주로 이루어진다. 피아노의 경우 하나의 악기로 여러 선율을 연주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독주에 적합한 악기이다. 멜로디와 반주도 동시에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곡에 적합한 악기이며, 이 곡은 ‘피아노 소나타’ 이다. 애초에 피아노 연주를 위해 작곡된 음악이기 때문에 피아노 이외의 다른 악기를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또 피아노 만큼 ‘월광 소나타’의 곡 분위기를 잘 살려 낼 수 있는 악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 3.6 음계

대부분 높지 않은 음계를 가지고 있다. 외려 낮은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함이 옳다. 악보를 보면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반주 선율 중 일부분이 악보의 아랫부분 까지 내려감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낮은 음계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 선율의 멜로디에서 보이는 음계들도 대부분 1옥타브의 음계 내에서만 존재하며 일부 더 높은 음계가 보이지만 이는 적으며 전체적으로 낮은 음계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곡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살렸다고 볼 수 있다.

---

<sup>6</sup> 서지연. "L. V. Beethoven Piano Sonata in c# minor, Op.27, No.2에 관한 분석 연구" VOL.- NO. - (2013), p. 37